

LIV 골프 장유빈 “한국 팬들 앞에서 더 좋은 성적 내겠다”

내일 개막 앞두고 기자회견…“지난 멕시코 대회 부진 만회할 것”

LIV 골프 코리아(총상금 2500만달러) 출전을 앞둔 장유빈이 모처럼 만난 한국 팬들 앞에서 좋은 성적을 다짐했다.

장유빈은 5월 2일부터 사흘간 인천 잭니콜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리는 LIV 골프 코리아에 출전한다.

2024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한 장유빈은 올해 LIV 골프로 이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며 2022년 6월 출범한 LIV 골프 사상 첫 한국 선수가 됐다.

LIV 골프 코리아는 LIV 골프의 첫 한국 대회이기도 하다.

30일 대회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유빈은 “올해 앞서 출전한 LIV 대회를 통해 많이 배웠고, 이번 한국 대회에 초점을 두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저와 팀원 모두 좋은 성적을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LIV 골프 6개 대회에 출전한 장유빈의 가장 좋은 성적은 2월 호주 대회의 공동 23위다.

특히 지난주 멕시코 대회에서는 최하위인 53위에 머물렀다.

그는 “멕시코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저에게는 제 골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한국 대회에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 팬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대회 부진에 대해 “퍼터가 안 풀렸고, 그러다 보니 흐름을 잡지 못하고 실수가 이어졌다”고 돌아본 장유빈은 “케빈 나, 대니 리 프로님들이 ‘세계 무대에서 통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장유빈은 케빈 나(미국), 대니 리(뉴질랜드) 등과 함께 같은 아이언헤드 팀 소속으로 LIV 골프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자신에게 ‘남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나’라는 질문을 던져봤다”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앞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각오를 전했다.

2015년 프레지던트컵이 열렸던 코스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장유빈은 “저도 어릴 때 그 대회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다”며 “이번 대회는 익숙한 곳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느낌 속에 더 잘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저희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 어린 선수들도 꿈을 키워가면 좋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장유빈은 LIV 골프의 특색을 소개해달라는 말에 “코스도 노래도 나오고, 갤러리들의 반응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아직 제가 챔피언 조처럼 중요한 조에서 경기한 적이 없어서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앞으로 챔피언 조에 들어가서 더 느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LIV 골프 코리아 경기를 앞두고 지난 30일 인천 송도 잭 니콜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아이언 헤드’ 팀 기자회견에서 장유빈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니 리, 케빈 나, 장유빈, 고즈마 지니치로..

/연합뉴스

펜싱 사브르 어벤저스, 안방서 세계 정상 도전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 미디어데이에서 오상욱을 비롯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원, 구본길, 오상욱, 파레스 페르자니, 전하영, 최세빈.

/연합뉴스

5월 2~4일 서울 그랑프리선수권 오상욱·구본길·박상원 등 총출동

한국 펜싱의 간판 종목인 사브르 선수들이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한펜싱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25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그랑프리는 펜싱 국제대회 중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많은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로, 한국은 2015년부터 사브르 그랑프리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엔 31개국 34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사브르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때 한국 펜싱의 메달 전제(금2·은1)를 책임진 핵심 종목이다.

당시 주역인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선 40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특히 오상욱은 올림픽 이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이번 시즌엔 국가대표팀엔 속하지 않은 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가운데서도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오상욱은 “올림픽 이후 제 속의 또 다른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현재 대표팀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도 대표 선수의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선전 의지를 다졌다.

오상욱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표팀을 떠나 있는 베테랑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 메달 욕심이 있지만, 경기는 열심히 하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대표팀 주축으로 자리 잡은 ‘영건’ 박상원(대전시청·세계랭킹 5위)도 “올

림픽 이후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대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상위 랭커로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다짐했다.

파리에서 사상 첫 올림픽 단체전 결승 진출과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의 세대교체 주역 전하영(서울시청)과 최세빈(전남도청) 등도 입상에 도전한다.

올림픽 이후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입상하며 세계랭킹이 2위까지 오른 전하영은 “멘탈과 기술이 한 단계 성장했다. 그 자신감이 월드컵이나 그랑프리 대회에 나섰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시상대에 오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엔 파리 올림픽 결승전에서 오상욱과 맞붙었던 세계랭킹 3위 파레스 페르자니(튀니지)도 출전해 ‘리턴 매치’ 기대감도 커온다.

페르자니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다시 오게 돼 기쁘다”면서 “최고의 경기를 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강진서 열린다

개최지 선정…11월 21~23일

강진군이 ‘2025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체육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 실사단의 실사를 거친 결과 최종 개최지로 강진군이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남은 2023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진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5개 지정스포츠클럽 소

속 임원과 선수 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수영, 야구, 테니스, 축구, 탁구, 체조, 댄스스포츠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주요 경기장은 강진종합운동장, 제1·2실내체육관, 강진아트홀, 강진베이스볼파크 등으로 확정됐다.

강진군은 이번 교류전의 주제를 ‘소통·연결·창조’로 정하고 ‘즐기GO, 먹GO, 보GO, 나누GO’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강진군이 추진 중인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반값여행과 농촌체험 ‘푸소(Feeling-Up, Stress-Off)’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농촌 문화와 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이인우, KPGA 챔피언스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

이인우(사진)가한국프로골프(KPGA) 시니어 투어인 챔피언스투어 2025시즌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인우는 지난 30일 경남 합천의 아텔스코트 CC 레이크·마운틴 코스(파72·6863야드)에서 열린 KPGA 레전드 클래식 시리즈 1(총상금 1억 5000만원) 최종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5언더파 139타를 기록, 박노석과 동타를 이룬 이인우는 2번 홀(파5)에서 열린 2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내 파를 지킨 박노석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400만원이다.

1994년 4월 KPGA 프로(준회원), 같은 해 8월 KPGA 투어프로(정회원)로 입회한 이인우는 KPGA 정규 투어에서 2승을 거뒀고, 2022년 챔피언스투어 입성 이후엔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거뒀다.

이인우는 “2005년 K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할 때도 박노석 선수와 경쟁했는데, 함께 연장전



을 가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 박노석 선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개막전에서 첫 우승을 기록한 만큼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류현자 개인전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2025. 5. 2. (금) ~ 6. 1. (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풍류 in 광주

2025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2025. 5. 2. (금) ~ 6. 1. (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류현자 개인전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2025. 5. 2. (금) ~ 6. 1. (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